

##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

### 2008년도 제25차 회의

1. 일 자 2008년 12월 3일 (수)
2.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
3. 출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(총 재)  
이 승 일 위 원 (부총재)  
심 훈 위 원  
박 봉 흠 위 원  
김 대 식 위 원  
최 도 성 위 원  
강 명 현 위 원
4. 결석위원 없 음
5. 참 여 자 남 상 덕 감 사 윤 한 근 부총재보  
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 
송 창 현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 
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 
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 
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 
민 성 기 공보실장
6. 회의경과

#### 가. 의결안건

#### 〈의안 제52호 — 「공개시장조작규정」 개정(안)〉

(1)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활한 매입과 이를 통한 은행의 재무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사가 발행

하는 사채를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

## (2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### 의결사항

「공개시장조작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붙임〉 「공개시장조작규정」 개정

(한국은행 홈페이지 ‘통화정책-금융통화위원회-의결사항’

또는 2008년 12월호 조사통계월보 ‘한국은행의 주요활동-

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’ 참조)

## 〈의안 제53호 —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예금에 대한 이자지급(안)〉

(1) 담당 부총재보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통한 여신여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예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

## (2) 위원 토의내용

일부 위원은 예금지급준비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원안에서 제시된 이자지급규모가 은행의 대출여력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데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자지급규모를 원안의 두 배인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함께,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조성 및 집행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

## (3) 심의결과

원안대로 가결

(다만, 최도성 위원은 원안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이자지급액을 1조원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였음)

### 의결사항

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예금에 대한 이자지급(안)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.

〈붙임〉 「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예금에 대한 이자지급」

(한국은행 홈페이지 ‘통화정책-금융통화위원회-의결사항’

또는 2008년 12월호 조사통계월보 ‘한국은행의 주요활동-

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’ 참조)